



3면

정동영 "새만금 사업 칼집 조짐 뚜렷"

전주매일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음 7월 8일) 제333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창업·벤처펀드 2호 조성... 840억 규모

전북·강원 혁신펀드 결성

수자원공·한국벤처투자
공동으로 2025년까지 조성

혁신기업·물산업 기업 등
유망 창업·벤처에 집중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이사, 유용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840억원 규모의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이하 전북강원 혁신펀드) 결성식이 열렸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이 지역의 창업생태계 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창업·벤처펀드 2호가 84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전망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이사, 유용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840억원 규모의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이하 전북강원 혁신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이번 혁신펀드는 지난 6월 KDB산업은행 1,406억원의 펀드조성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강원 혁신펀드'는 전북도 강원도 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의 출자금을 포함해 2025년까지 840억원 이상의 자펀드로 조성될 계획이다. "모펀드: 지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지펀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된 펀드는 전북·강원 지역의 혁신기업, 물산업 기업, 규제자유특구 기업 등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종전적으로 투자된다. 올해는 공모를 거쳐 '소용벤처스(140억원)'와 '인다아시아벤처스(170억원)'의 2개 310억원 규모로 자펀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업발굴과 부자

사무소 개소 등 전북 부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도는 '전북·강원 혁신펀드'의 경우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부터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중기부, 수자원공사를 수차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챙긴 프로젝트이며, 지역펀드 1조원 조성이라는 공약의 밑거름이 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강원 혁신펀드는 지역을 대표하는 보편자본으로 도내 벤처창업가

의 갈증을 해소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장단계별 특화산업별 펀드를 조성해 자금부족으로 창업에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1조 규모의 펀드 조성과 함께, 전국 규모의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개최,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창투자문다 운영, 스타트업 키움공간 조성, 해외스타트업 유치 등 착박한 지역 창업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김재훈 기자

"잼버리 허위사실에 맞설 것"

전북도의회 의원 39명, 진실규명 대응단' 구성
행사 진행과정서 제기된 문제 사실관계 알리기로

전북도의회가 전북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허위사실 등에 맞서 진실규명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관련사건 3면) 전북도의회 의원 39명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도의회는 도정의 감시·견제 기관이기에 앞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대변자"라면서 "지금 도민들은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이 전북에 있으며, 잼버리를 발미로 새만금 국가 예산만 탕했다는 식의 정치권의 거짓된 주장 등으로 인해 크게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 정부·여당·일부 언론이 전복책임론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가리기 위

해 전북을 희생양 삼고 180만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후안무치의 소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 역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북이 잼버리를 성공 개최 하겠다고 대국민 사기공을 펼쳤다는 식의 정략적인 매도 등에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 의원 39명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조직위와 전북도의 역할 및 행사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알리고, 정부 부처와 각 정당을 방면해 잘못된 거짓 정보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항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도, 오늘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

특별재난지역은 훈련서 제외

전북도는 28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도내 11개 시·군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오후 2시 공습경보가 울리면 모든 주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대응도움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대피한 주민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1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전파되는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 방송(TM 96.9MHz)을 청취하며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시·군별 1개 이상 도로 주요 구간에서 전북경찰청의 주관으로 비상

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도 실시된다. 훈련 구간의 신호등은 적색으로 점멸되며, 훈련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차량을 정차하고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또한 전북소방본부 주관으로 소방차길 터주기 훈련과 연계한 긴급차량실제 운행 훈련도 실시된다. 비상 경보음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운전 실제 체험을 유도하여 양보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이어 도내 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대상 대피 훈련도 실시된다. 한편,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 김제 완주 군산(서수면), 고창(공음면 대산면), 부안(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농산물 전처리 시장 개척 나서

원료 수급 관련 도내 식품기업 애로사항 해결 위한 계기

식품공장, 내인권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식품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내 전처리 시설 및 지원 현황, 전처리 산업의 애로사항,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전처리 산업과 시장 개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농산물 전처리 사업은 농산물을 식품 제조에 맞게 세척, 절단, 소독, 살균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전북도가 농산물 전처리 시장 개척에 나선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

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원료 수급과 관련한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로 시작했다. 도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농산물 전처리 사업 활성화 및 거점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한 전처리 관련 과제 발굴 시군 의견 수렴,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가 식품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북산 농가 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한 식품산업과 농업소득 연계를 위해 식품기업과 농산물 전처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22일 오후 동김제농협 로컬푸드통합유통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전처리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전처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신원식 도 농생태축산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제27회
The 27th Muju Firefly Festival

반딧불축제

2023.
9/2(토) - 9/10(일)

주최: 무주군
주관: NBS, 반딧불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